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달리 적금' 외화 발행어음

한국금융투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달러(USD)로 매달 적금처럼 적립할 수 있는 연 3.5% '적립식 퍼스트 외화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적립식 퍼스트 외화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외화자금을 외화자산에 운용하고 투자자에게 약정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적립식 납입 기능이 추가된 발행어음이다. 개인고객에게 연 3.5% 금리를 제공하며 1인당 월적립금 최소 100달러(USD) 이상 최대 1000달러(USD)까지 정액적립식으로 납입할 수 있다. /손영지 기자



하나금융투자 '요기요' 쿠폰증정 이벤트

하나금융투자는 하나금융그룹의 토털 금융 플랫폼인 '하나멤버스'를 통해 하나금융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손님에게 '요기요'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오는 7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하나멤버스를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하고, 이벤트 배너에 링크되어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페이지에서 하나금융투자의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손영지 기자



한화투자증권 28일까지 신규고객 이벤트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28일까지 생애 최초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Smart)한 혜택을 누리봄' 이벤트를 실시한다. 'Smart한 혜택을 누리봄' 이벤트는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계좌개설 완료 당일부터 모바일 국내주식(KOSPI, KOSDAQ, ETF) 거래 수수료가 5년간 면제 된다. '스마트한 혜택을 누리봄'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은 투자지원금, 신용담보대출금리 할인, 월간 경품 추첨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손영지 기자

# 이달 서울 분양大戰... 4700가구 쏟아진다

(일반분양)

서대문 'DMC 금호 리첸시아' 경의중앙 가좌역 5분 '초역세권'  
 동대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인근에 청량리역... 총 1425가구  
 강남구 '래미안라클래시' 청담역·코엑스 등 시설이용 편리

<이달 분양하는 서울 주요단지>

지역	단지명	시공사	총 가구수
서대문구	DMC금호 리첸시아	금호건설	450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롯데건설	1,425
중구	힐스테이트 세운	현대엔지니어링	998
강남구	래미안 라클래시	삼성물산	679
서초구	서초 그랑자이	GS건설	1,481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대우건설	514

/자료=덕이파트 및 각사

서대문구 가좌역9구역 재개발 아파트 'DMC 금호 리첸시아' 투시도.

이달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대전(大戰)'이 펼쳐진다. 이번 분양에는 강남과 서초, 가재울뉴타운, 청량리 등 주요 지역이 총 망라된다.

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12곳, 1만423가구로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뺀 470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2곳 1178가구(일반253가구) ▲서초구 2곳 1581가구(일반227가구) ▲송파구 1곳 1945가구(일반745가구) ▲동작구 1곳 514가구(일반153가구) ▲서대문구 1곳 450가구(일반265가구) ▲마포구 1곳 1419가구(일반50가구) ▲중구 2곳 1612가구(일반1612가구) ▲동대문구 1곳 1425가구(일반1253가구) ▲양천구 1곳 299가구

(일반150가구) 등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교통, 학군 등 이미 검증된 입지가 대부분이어서 관심이 쏠린다"며 "강남3구와 가재울뉴타운, 청량리 등 주목할 곳이 많아 실수요자라면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 청약에 나서볼 만하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 금호건설은 이달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9구역에 재개발한 'DMC 금호 리첸시아' 16~84㎡, 450가구 중 26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6호선·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가깝다. 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에 재개발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84~177㎡, 1425가구 중 125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KTX가 지나가는 청량리역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도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라클래시' 74~84㎡ 679가구 중 1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청담

역이 가깝고 코엑스 등 대형 복합문화 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 그랑자이' 59~119㎡, 1481가구 가운데 2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이 가깝고, 서이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41~84㎡, 514가구 중 1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가깝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 KB증권, 발행어음 첫 발... 한투·NH투자증권과 경쟁

### 연내 발행어음시장 12조규모 기대 연 최대 3% 'able 발행어음' 출시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세번째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했다. 제공 금리는 1년 만기 약정식 연 2.3%다. 앞서 발행어음에 진출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제공 금리와 비슷한 수준에 맞췄다. 연내 발행어음 시장은 12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3개 증권사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부동산 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KB증권, 발행어음 진출  
 KB증권은 3일 'KB able 발행어음'을 출시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KB able 발행어음'은 원화·외화 약정식, 수시식 상품을 비롯해 원화 적립식 상품



3일 KB증권 여의도 영업부에서 열린 'KB able 발행어음' 출시 기념행사에서 이종구 고객(가운데)과 KB증권 박정림 사장(오른쪽), 김성현 사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으로도 출시했다. 제공 금리는 1년 만기 약정식의 경우 연 2.3%(원화)·연 3.0%(외화)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식의 경우 연 1.8%(원화)·연 2.0%(외화)로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자산관리(WM) 부문 대표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충실히 해 온 만큼 KB증권의 발행어음을 신규 수익원 및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은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표상

품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IB부문 대표인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발행어음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고객에게는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상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IB부문이 발행어음 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어음 선점 공방  
 KB증권의 발행어음 시장 합류로 세

증권사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서로 금리를 올리며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작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금리를 2.3%에서 2.5%로 올리자 NH투자증권도 금리를 높였다. 이후 NH투자증권이 2.5%에서 2.3%로 낮추자 한국투자증권도 2.35%로 금리를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KB증권의 발행어음 출시에 맞춰 증권업계 최초로 달러(USD)로 적립할 수 있는 연 3.5% 외화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아울러 세 증권사 모두 '특판상품'을 앞세워 고객 물이에 나섰다. 특판상품은 연 5%의 고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팔수록 부담인 역마진 상품이다. 연초 NH투자증권이 50주년 이벤트와 함께 연 5% 금리를 보장하는 적립형 발행어음 상품을 선착순 5000명에게 판매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은 बैं키스계좌 전용으로 연 5% 특판 적립형 발행어음을 선착순 5000명에게 판매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고객자산가 30% 증여·상속 '고민'

삼성증권은 지난 4월부터 자사 예치 자산기준 3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1630건의 정기 컨설팅을 분석한 결과 고객자산가들은 '증여·상속'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밝혔다. 해당 기간 컨설팅을 받은 자산가들은 현재의 고민을 묻는 질문에, '증여·상속'(30.2%)을 가장 큰 고민이라 답

했고, 이어 '금융수익'(30.0%)과 '양도세 절세'(19.2%), '부동산 투자'(14.0%), '보유기업의 자금운용 방안'(2.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금융자산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업가들이 기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증여·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삼성증권 측은 설명했다. 기업승계와 관련된 자산가들의 높

삼성증권, 정기컨설팅 1630건 분석  
 금융수익 30%, 양도세 절세 19% 順

은 관심을 반영하듯 기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받은 상담고객의 경우 80% 이상이 실행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성원 삼성증권 기업승계연구소 소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컨설팅을 한 결과 국내 자산가들의 증여·상속과 연계된 기업승계에 대한 관심은 상상이상이었다"면서 "기업승계와 상속 등은

예민한개인정보를 상당기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한번 상담을 드린 세무전문가가 주치의처럼 계속 상담할 수 있도록 '마이 텍스 매니저'(My Tax Manager)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객만족도가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기업승계와 관련해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5일 서초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기업승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손영지 기자